

산자수명한 삼국유사의 고향 군위

군위군 산림조합장 | 최 규 중

경상북도의 최종심지 군위군은 환경이 깨끗하고 아직 때 묻지 않은 전형적 농촌마을로 사람의 발길이 그리 많지 않고 태고의 신비가 살아 숨 쉬는 삼국유사의 고향 군위군은 남북이 짧고 동서가 길며, 지세는 곳곳에 산악의 기복이 심하며 남쪽에는 팔공산을 경계로 대구광역시와 경계를 이루면서 산맥이 동서로 길고 그 산맥이 동으로 뻗어 청송군 및 영천시와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중앙을 흐르는 위천은 동쪽 고로면 학암리에서 시작되어 북쪽 소보면 사리리를 지나 의성군 비안면에서 쌍계천과 합류되어 낙동강 본류로 흐르고, 위천 지류인 남천은 팔공산을 시작으로 부계면과 효령면을 거쳐 효령면 병수리에서 위천에 합류되어, 하천유역의 양안에 농경지가 형성되어 군위를 소보면 효령면 의흥면 등의 평야지대는 관개가 용이하며 평균기온이 여름에는 23.9℃이고, 겨울에는 영하1.2℃정도로서 한서의 차가 심한 곳으로 산림면적이 군 전체의 76%인 4만 6천 4백 4십 5ha를 가진 산촌이기도 하다.

중부 고속도로에서 군위IC에서 나오면 삼국유사의 고향 군위란 대형 조형물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28번 국도를 타고 영천방면으로 20여분 달리면 고려 충렬왕 때 연대미상이나 보각국사 일연스님이 3국의 유사를 모아 지은 삼국유사를 집필한 장소인 인각사가 보인다. 인각사(麟角寺)라는 이름은 절 앞 위천 강변에 깎아지른 듯 서있는 바위벼랑이 기린이 뿔을 얹은 형국 이라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이 사찰은 신라 선덕여왕 11년(64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일연스님이 이곳에서 삼국유사를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고려 충렬왕 때 일연스님은 그 후 이곳 인각사에 머물며 저술활동에 전념해 삼국유사와 불교서적 100여 권을 집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연스님은 승과에 합격 후 25세 무렵에 몽골의 침략을 겪었는데 이때 대장경 사업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종과 충렬왕은 그를 국존을 받아 들였다 하며, 그는 나이가 들자 이곳 인각사 절에 들어 승려들을 모아 놓고 대회를 여는 등 불교계에 올바른 전통심기 노력, 전국을 돌며 수행 중에 몽골의 침략과 원의 지배로 고통 받는 민중의 비참한 모습을 눈으로 보고 겪었는데 불교신앙에 의지해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그 방법의 하나로 전국을 떠돌면서 보고 겪은 이야기를 하나의 책으로 묶고자 하여 이 책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리하여 군위를 삼국유사의 고향이라고 불려진 것이다.

인각사에서 약2km 정도 지방도를 타고 올라가면 2010년 준공된 군위 댐이 시원하게 펼쳐지는데 댐을 둘러싼 숲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물과 산의 만남의 장이 펼쳐지는데 광대한 동양화가 눈에 들어 온듯하다. 댐 주변에 새롭게 조성된 군위지역문화를 반영한 역사문화 공간과 자연환경을 살린 친환경 공원, 생태학습 공간으로 조성된 생태습지,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등은 관광명소로써 관광객의 시선을 끈다.

댐 중앙부를 가로 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장곡휴양림이 눈앞에 들어 오며 산막 부근 호젓한 산책로엔 4계절에 맞춰 옷을 갈아입는 활엽수림이 반기는데 낙엽 쌓인 운치가 그만이다. 휴양림 들머리 강변은 여름 물놀이를 즐기기에 최적지이고 활엽수로 가득 찬 주위가 겨울에 눈이 오면 마치 설국을 상징하듯 하늘과 나무가 맞닿아 있고 면적 78만 3천평에 야영장, 산책로, 산막, 삼림욕장, 전망대, 숲 속의 집 등 편의 시설과 체력 단련 실, 어린이 놀이터 등과, 야외교실, 수련장, 자연관찰원, 전시관 등의 교육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휴양시설이 고루고루 갖추어져



있고 숲 해설가가 상주하는 석산리 유사골 생태마을의 모노레일의 신나는 산촌여행과 아미산의 기암괴석은 등산객을 유혹하고 신비의 소나무는 전국적으로 수험생가족 등이 찾고 다양한 볼거리는 여행자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고구려에서 전해진 신라불교가 팔공산자락에서 꽃피워지고 신라왕도(王都) 경주로 전해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에 있는 제2석굴암은 높은 암벽의 자연동굴 안에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 그리고 관음보살을 모셔 놓은 곳이다. 동굴에 불상을 모신 것이 경주의 석굴암과 비슷하여 제2석굴암으로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삼존석굴이며 팔공산 비로봉에서 뻗어 내려온 산줄기는 이곳에서 거대한 바위산 절벽을 이루었고, 이 절벽허리 20m 높이에 남으로 향한 등근 천연동굴에 삼존불상을 봉안하였으니 이를 삼존석굴이라 한다.

현재 국보 제10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삼존석굴은 제2석굴암이라는 이름 때문에 경주 석굴암을 모방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경주 석굴암보다 약 100년 정도 먼저 만들어졌다고 한다. 신라의 불교 공인(법흥왕)전 핍박받던 시대에, 숨어서 오로지 불심(佛心)으로만 수도하던 곳으로서, 8세기 중엽 건립된 경주 토함산 석굴암 조성의 모태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석굴암에서 하부약 2km 내려오면 일명 한밤마을은 수백년 된 전통가옥이 수두룩한 가운데 집집마다 온통 돌담으로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돌담길을 걸어 볼만하다. 이 마을은 오천년을 바라보는 오래된 부림 흥씨의 집성촌으로 고택들과 줄줄이 이어진 돌담들의 행렬, 울창한 마을 앞 소나무 숲, 마을 안에 있는 대울사라는 절과 보물 제988호인 대울사 석불입상, 그리고 오래된 서당 건물 보물 제998호로 지정된 대울리 석불입상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62호로 지정된 대울리 대청이 있다. 아늑한 분위기와 함께 많은 볼거리가 이 마을은 한밤마을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는 마을 가운데에 있는 대청 건물이다. 예전에는 서당으로 쓰이던 건물인데 현재는 경로당으로 쓰이고 있다. 한밤마을은 마을 전체가 돌담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돌담이 많아 가볍게 산책을 즐기며 여유를 찾기에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간이역 화본역과 삼국유사 벽화마을, 그리고 추억의 학교가 어우러진 시골의 조용한 마을 화본리에서 추억의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이름난 화본역에는 금방이라도 라퐼젤이 나올 것 같은 급수탑, 추억의 박물관인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로 되살아난 산성중학교에서 추억의 놀이 체험과 웰빙 먹 거리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체험관광을 경험하게 된다. 산성역에는 1962년에 문을 열었다는 추억어린 다방이 있다. 화본역은 1938년 보통 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청량리와 부전을 잇는 중앙선 역이다.

화본역은 조용한 시골마을이 새롭게 태어나 관광객들에게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폐선철로 및 간이역 관광자원화 사업 대상지로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사업이 선정되어 광장을 넓히고, 역사와 플랫폼 주변을 정비하고 급수탑 주변도 소공원으로 아담하게 만들어 놓았다. 원통모양으로 서 있는 28m높이의 급수탑은 증기 기관차에 물을 보충하기 위한 시설이다. 조용한 시골 마을인 화본마을은 팔공산과 조림산으로 둘러싸여 세월의 흐름을 잊은 채 1962년 문을 연 성희다방, 역전 상회와 산성중학교 폐교지에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라는 이름의 근현대사 박물관이 꾸며져 있으며 주위가 아직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마을길 양쪽 담벼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 길을 따라 걸으면 일연 스님과 김유신 장군을 만난다. 마을 회관 앞에는 이력을 알 수 없는 커다란 고인돌이 앉아 있다. 근현대사 박물관에는 풍금이 있는 교실, 나무 의자와 책상, 도시락이 올려진 난로, 누군가의 일기장이 놓인 선생님 책상, 출석부가 있는 교탁, 그리고 벽에는 반공 포스터와 그림일기가 붙어 있다. 골목길에는 옛날 라디오와 축음기가 진열된 한국전쟁 당시의 소리사가 있고, 사진관과 이발소가 있고 연탄가게와 옥탑방, 군것질 거리 가득한 역전 상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상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삼국유사의 고향 군위, 최근 이 지역에 지상파 방송사의 방영 경쟁 속에 유명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군위, 볼거리가 많고 조용하고 분위기가 넘치는 군위를 한번 찾아보자.